

불교인물 총망라한 최초의 사전

이정 엮음 「韓國佛敎人名辭典」



한국불교 최초의 인물사전.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현대(1991년)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승려·신자 및 그밖의 불교 관계 인물이 총망라되어 있다. 풍부한 자료를 통한 정확한 고증으로 기존 간행물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또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의 불교인물자료로는 「해동고승전」, 「東師列傳」, 최근 김동화 박사가 편찬한 「한국역대고승전」 등의 僧傳들과 이에 기초하여 운허 스님이 편찬한 「불교사전」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일부 내용이 그 전부였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불교인물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사전이 아니라 몇몇 고승들의 行狀에 불과했다. 따라서 덜 알려진 인물들을 찾으려면 옛자료들의

단편적 기록을 일일이 뒤져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문으로 된 원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인명사전」은 비단 연구자뿐 아니라 우리의 불교사 내지 정신사에 관심있는 일반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록내용은 1) 인물의 생몰연도, 2) 신분구분, 3) 두드러진 업적이나 인물 특징, 4) 호·자·이름·본관, 5) 태어난 곳과 때, 가족사항, 6) 주요 활동사항, 7) 입적한 곳과 때, 8) 추증된 시호, 탑비의 위치, 9) 제자의 이름, 10) 역사적 평가, 11) 저술 및 그 내용 등이며 부록으로는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과 「한국 불교인물연표」가 수록됐다.

그 내용들은 현재까지 쓰여진 승전들과 기존의 사전들, 그 외에 단편적 옛 인물 자료, 불교계의 각종 간행물들을 창조하여 기술됨으로써 개개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많이 차용함으로써 「한국불교 최초의 인물사전」이라는 주목에 값하는 든실함을 보여준다.

원래 이 사전은 불교방송(BBS) 조사자료부 이정 차장이 방송용 자료로서 컴퓨터에 정리하던 것. 따라서 「편자의 제한된 안목이 인물의 선정과 업적의 평가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함」을 '고백' 한다. 그는 이어 "모든 사전이 그 분야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지침이자 향후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이 사전도 미력이나마 그러한 역할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힌다.

불교시대사/A5신/456면/20000원

명작을 통해본 현대미술 백년의 열정

박래부 지음 「한국의 명화」



우리의 근·현대미술사를 찬연하게 장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가·조각가 50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분석한 「한국의 명화—현대미술 100년의 열정」이 출간됐다. 한국일보 문화부 박래부기자가 쓴 이 책은 "저널리스트틱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생애와 미학에 접근했을 따름"이지만, 저널리스트만이 쓸 수 있는 방법론과 문제로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이 지닌 감동을 통해 그들의 내면적 진실을 이해하고 전달"했다는 점에서 미술에 접근하는 새로운 한 통로를 열어준다.

그의 방법론은 미술사를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조형의지"를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하나인 "시대정신"의 문제를 매우 적절하게 밀그림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그의 글은 "예술가의 정신과 작품의 실제 표현 통로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의미

를 끌어내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내적 성찰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그의 문체는 한국현대 미술사라는 매우 둔탁하고 딱딱한 문체를 유연하게 풀어헤친다. 예술의 심오함과 예술가의 열정을 열린 의식의 가벼움으로 표현해낸다. 문학평론가 김훈씨와의 공저인 「문학기행」에서 보여줬던 '공감의 문체'가 미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서도 풍요롭게 흘러 넘친다.

컬러, 양장본인 「한국의 명화」에는 김환기씨 등 서양화가 33인, 이응로씨를 비롯해 동양화가 12인, 권진규씨 외 4인의 조각가 등 50인의 작가가 소개된다. 내용은 지난 91년 12월부터 93년 1월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시리즈를 중심으로, 90년 가을 원로중진화가 12명과 중국을 미술기행하고 연재했던 「백두산 가는 길」을 모은 것. 따라서 우리의 선구적 작가들이 입체파·추상주의·야수파 등의 현대적 경향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던 1930년대부터의 미술사를 작가 중심으로 더듬은 '한국현대미술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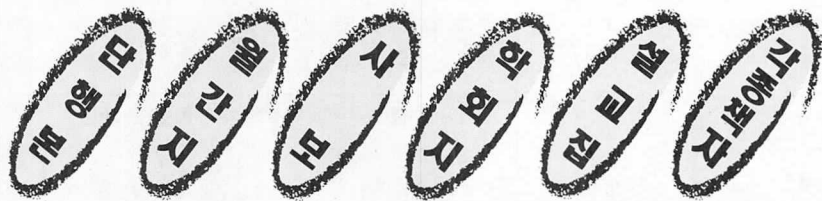
저자는 머리말에서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점철된 우리의 근·현대사는 황량한 암흑기였으며, 탁월한 화가·조각가들은 그 절망의 時空을 작가의 숙명적인 빛을 발하며 용기있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며 "이 책에 실린 많은 작가들은 작품세계 이외의 그들의 삶만으로도 시대적 아픔과 비극을 감동적으로 완성하고 떠난 인간들이었으므로 책을 묶는 시점에 새삼 비감이 솟구친다"고 출간에 즈음한 소감을 적어놓는다.

민음사/A5신/254면/15000원

출판문화의 다양한 노하우를 드립니다!

- 기획 / 편집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도 놀라운 구상과 아이디어로 신선한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축적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 전산편집기 및 수동사식기 보유
화면에서 페이지업이 가능하며 필요에 적절하게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 유능한 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문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이핑 하는 것은 고도의 재능과 숙련으로만이 가능하며 감각과 센스를 겸비한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디자이너의 생명입니다.
- 표지디자인 및 고급카드록 기획 편집
디자인 예뻐는 원색의 기획 편집에 다양한 노하우로 격조 높은 표지디자인을 연출하며 최고의 품질로 원색화보, 졸업앨범, 고급카드록을 편집·제작하여 드립니다.

- *신선한 기획!
- *놀라운 편집!
- *최고의 인쇄!



디자인예뻐 TOTAL DESIGN

100-340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 668호
☎(02)269-2779, 279-2626, 277-6998, 268-5991 (FAX)

텔레비전의 열려있는 가능성 모색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



‘가까이’ 보고난 뒤, 매체 수용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갖자(멀리서 읽기)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특히 TV를 본격적인 문화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매체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비판 등 거대이론에 기댄 시각을 탈피하여 “텔레비전의 열려져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텔레비전이 쌍방소통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전자이미지의 친절함이 이미지의 민주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사람들의 광장이 되어줄 수 있는가 등등의 ‘텔레비전 시대의 문제의식’이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평론가 백지숙씨는 「텔레비전이 나를 본다」에서 텔레비전을 읽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리모컨과 VCR을 이용해 TV프로그램을 재가공하는 것이 “주체의 개입이 보장된” ‘멀리서 읽기’를 가능케 한다는 것. 강영희씨는 「스타론」에서 최진실 등을 분석, 스타의 사회적 기능과 스타시스템의 구조를 살핀다. 음악평론가인 강현씨는 「뮤직비디오, 영상제국의 새로운 왕관」에서 시각이미지와 소리이미지의 결합을 미국의 M-TV를 사례로 들며 분석한다. 한편 김진송씨(미술평론가)는 「가난의 미학」에서 최근에 막을 내린 드라마 「아들과 딸」을 통해 「과거를 소비」하는 드라마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소비가 현재를 정당화시키는 역할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실문화연구 / B4 / 240면 /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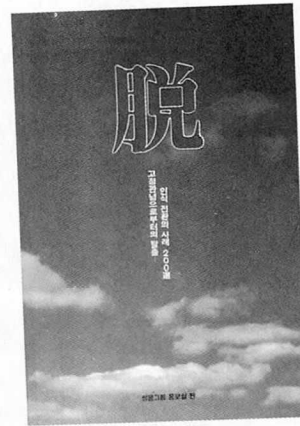
리얼리즘과 증기기관, 모더니즘과 전기기관,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원자력기관 등으로 자본주의의 문화변화의 계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수공이미지·화학이미지·전자이미지 등의 변화 역시 문화형태의 진행을 말해준다.

그중 TV로 대표되는 ‘전자이미지’의 탄생은 자연을 묘사한다는 이미지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이미지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이야기된다.

출판모임 ‘현실문화연구’에서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는 현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의 통로인 ‘TV’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다. ‘텔레비전 세대’라 할 수 있는 젊은 필자들이 “우리시대의 TV현상”을

기업 ‘밖’에서 화제 모은 기업 ‘안’ 출판

쌍용그룹 퍼냄 「脫」



다.

이처럼 사례가 ‘혁신적’이라는 점 이외에 이 책은 “앞뒤가 따로 없는 편집체제”를 지니고 있어 화제성을 증폭시킨다. 100가지 사례는 ‘앞’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100가지 사례는 ‘뒷표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두서없이 읽어도 내용의 이해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脫」다운 편집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쌍용그룹이 지난 1월 사내보 200호 발간을 기념해, 사내보에 1년 3개월간 연재해 온 내용을 사내용 비매품 단행본으로 제작한 이 책이 출판시장에 선보이게 된 것은 ‘여론의 압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을 엮은 쌍용 홍보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책이 발간되자 다른 기업·관공서 등으로부터 의식개혁이나 새로운 기업문화운동의 교재용으로 대량구입을 요청해오고, 개인적으로 입수를 요청하는 연락이 그치지 않아 비매품 발간 5개월만에 출판사를 통해 유가치로 보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판매를 통해 생기는 인세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체육회(회장 김석원)에 전액 기탁하기로 출판사측과 계약했다”고 전해, 돈 문제까지 「脫」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이 책은 또한 ‘기업과 출판’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내용으로 펴냈다가 출판사를 통해 시판하게 된 최초의 책이기도 하다. 「성곡논총」 「대우학술총서」 등은 대기업이 연구활동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경우이고, 「1초를 잡아라」(삼성경제연구소)는 처음부터 시판을 목적으로 펴낸 책이므로 그러하다.

도서출판 하우 / A5신 / 258면 / 4800원

쌍용그룹이 사내용으로 펴내 회사 밖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인식의 전환 사례집”인 「脫」이 도서출판 ‘하우’에 의해 서점에 나왔다. 이 책은 제목이 명시하듯, 선입관·편견·고정관념 같은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직장이나 개인생활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사례들을 발굴하여 조명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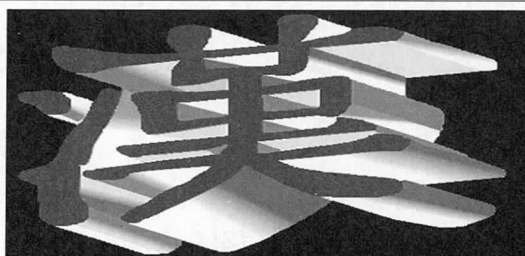
이 책에 수록된 200편의 사례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 만큼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아 ‘개혁시대’를 사는 일반독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실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명함에 우편번호를 적자”고 「脫」은 역설한다. 명함의 주소를 보고 우편물을 보내본 이라면 우편번호 없는 명함을 한번쯤 원망했을 터인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고 손쉬운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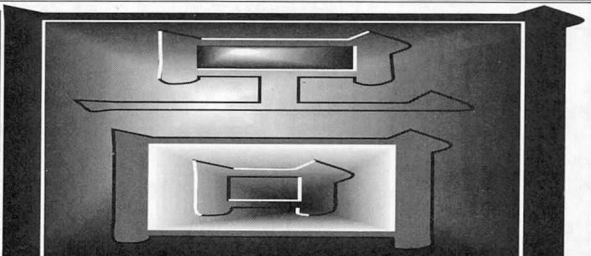
Macintosh Desktop Publishing System

맥킨토시를 줄여서 ‘맥’이라고 한다. 진정한 Full Pagenation(글자·사진·도표·그림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완성된 1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구현하므로 갈과 풀(대지작업)이 필요 없다.

※ ECRM社의 PeiBox/VR-30이 신속한 출력을 보장한다.



컴퓨터에는 약 4,500餘字의 漢字 밖에 없다. 그러나 脈漢圖에는 모든 漢字가 다 있다. 그 외에 中國簡字·日本略字·古語들이 있다. 전화/팩시 한통이면 화면용 폰트가 配達된다. 漢字는 人類精神의 寶庫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소리글자(입술기버운소리)에 中毒된 現代人들의 荒廢한 精神世界를 治療할 수 있는 唯一無二한 治療劑이다.



도안·그림(그래픽)·사진들이 함께 처리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脈漢圖

Tel 723-1955 Fax 723-6789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310호
代表 琴河淵